



# 신흥시장국에 대한 외국은행들의 진출 본격화

최근 신흥시장국으로의 외국은행 진출이 규제완화 및 성장 기대감을 배경으로 본격화되고 있는데, 기존의 지점개설 방식보다는 영업력 및 경쟁력 강화를 용이한 현지은행 인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. 그러나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감독당국의 높은 관심이 필요함.

- 최근 신흥시장국들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경제의 성장성이 기대됨에 따라 외국은행들은 신흥시장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.
  - 진출형태로 보면 영업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지점 위주에서 탈피하여 현지 은행을 인수·합병(M&A)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사례가 두드러짐.
  - 지역별로는 구 공산권인 중동부 유럽과 중남미지역에서 외국은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아시아 진출에 대한 외국은행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.

〈표〉 신흥시장국에 있어서 외국은행의 총자산 규모와 비중

(단위 : 10억달러, %)

	총자산	은행산업내 비중		GDP 대비	
		1990	2004		
중동부 유럽	불가리아	13	0	80	49
	체코	99	10	96	92
	에스토니아	11	n.a.	97	89
	헝가리	68	10	83	67
	폴란드	105	3	68	43
아시아	중국	71	0	2	4
	홍콩	570	89	72	344
	인도	36	5	8	6
	한국	65	4	8	10
	말레이시아	32	n.a.	18	27
	싱가포르	159	89	76	148
	태국	32	5	18	20
중남미	아르헨티나	31	10	48	20
	브라질	107	6	27	18
	칠레	35	19	423	7
	멕시코	342	2	82	51
	페루	11	4	46	14
	베네수엘라	9	1	34	9



- 외국은행들의 신흥시장국 진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부 유럽에서는 민영화와 EU 신규가입을 배경으로 외국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.
  - 또한 중남미의 경우 1994년말 멕시코 통화위기 이후 외국자본 규제 완화와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 가입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외국은행들의 진출이 확대됨.
  - 이에 반해 아시아는 국제금융센터인 홍콩과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외국은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.
  
- 중동부 유럽의 외국은행 비중이 특히 높은 것은 아래와 같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.
  - 첫째, 이들 국가에서는 구 공산정권 몰락 이후 민영화를 위해 외국자본 규제가 완화됨과 동시에 금융규제를 위한 인프라가 정비되었으며, 향후 유로권 편입을 앞두고 있어 EU 회원국 은행들의 활동이 용이한 이점이 있음.
  - 둘째, 소매업무에 있어서 EU 회원국은 현재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.
  - 셋째,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경험한 이들 국가의 은행시스템은 비효율적인 반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높아 외국은행의 진출이 용이함.
  - 넷째, EU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, 공통언어, 법률체계, 전통 등 문화의 동질성이 높아 금융기관이 지불해야 할 정보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음.
  
- 한편 아시아는 1997년 통화위기 이후 외국자본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외국은행들의 진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.
  - 1997년 이후 지점형태의 신규 진출은 거의 없으며, 현지은행 M&A를 통한 진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.
  -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점포 및 ATM 설치에 대한 규제, 임직원 채용시의 외국인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어 외국은행의 진출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.
  
- 한편 외국은행의 진출은 경쟁을 통해 국내은행의 효율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, 선진 금융기법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체력이 약한 신흥시장국 금융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음.
  - 반면 부유층이나 우량고객만을 상대로 영업하는 선별금융(cherry picking)에 집중하고, 중소기업금융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의 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됨.
  - 또한 신흥시장국으로의 외국은행 진출 확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물론 자국 금융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각국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의 진출 확대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.